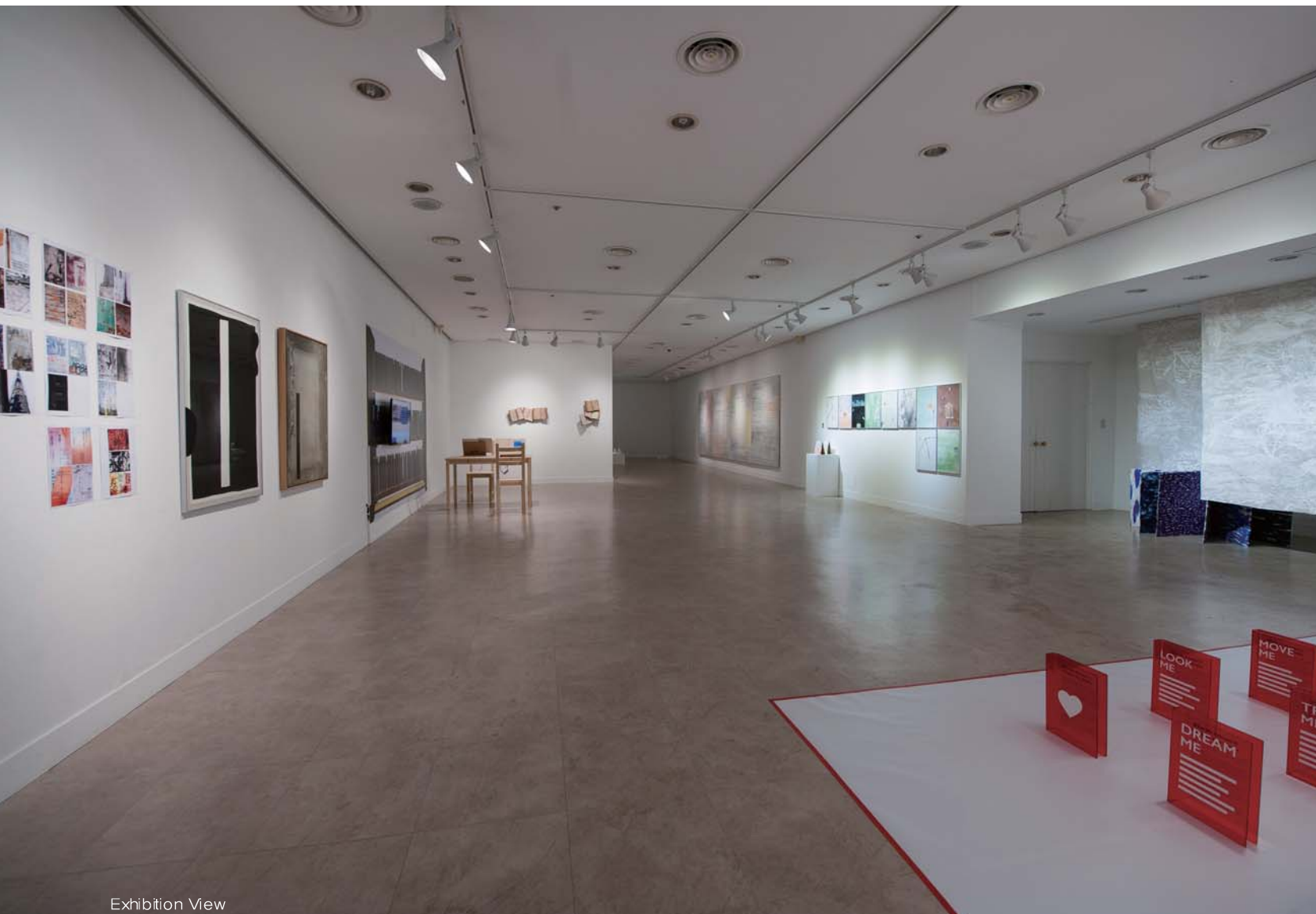


아티스트 북 I-Message



아티스트 북 I-Message

2018. 7.3화 - 8.31금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 야외공원



Exhibition View

13인의 현대미술작가들에 의해 재해석된 작가의 책

'아티스트 북, I-Message'는 미술이 보여진다는 의미를 넘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주기 바라는 전시다.

책이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은 외부와 소통하고자하는 작가들의 메시지이다. 타자와 소통하는 대화기법 용어이기도 한 i-message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조형세계를 전달하는 작가들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주제다. 또한 책이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한 인쇄와 제본이라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내면세계와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여 독특한 조형성을 찾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제작한다.

책을 모티브로 한 이번전시에서 작가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표현매체로 재해석해 제작한 작가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준다.

자신의 조형언어를 설명하는 중요한 오브제로 책의 이미지를 사용한 김봉수, 김미련, 박철호, 오정향, 이지현, 임현우 작가는 책의 고유 기능 해체를 통하여 전하고자하는 작품의 메시지를 해석해 주기 바란다.

문학적인 주제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해가는 김계희, 백미혜 작가는 감성을 표출하는 화면 형식에서는 대조를 이루지만 작품을 만드는 영감의 근원은 시인의 감성임을 읽을 수 있다.

현실이 투영된 동화적 이야기들을 담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강훈, 이기철 작가는 오히려 동화적 상상으로 현실사회를 풍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디지털로 복제시킨 이미지를 데이터로 만들어 변환시킨 권혁규, 박병철, 서현규 작가의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쇄적 사고가 엿보인다.

한편, 책을 모티브로 제작된 전시 출품작들은 지식콘텐츠산업의 중심으로 육성되는 지역 인쇄·출판 문화산업의 도약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한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던 인쇄·출판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의 지식문화콘텐츠와 예술의 융합이다.

지역의 문화산업 자산으로 오래도록 형성되어 온 인쇄문화의 형식과 내용을 작가의 시선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예술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현대미술이 지향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과 창조력이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순수예술을 지식문화산업의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최근의 경향도 대변한다.

확장된 현대미술 영역을 엿볼 수 있는 '아티스트 북, I-Message'展을 통해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아티스트북, I-Message

이 글을 쓰기 위해 작품 설치가 끝난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전시가 가진 의도와 참여 작가 명단만 알고 있었다. 기획 의도는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었고, 작가 라인업에 들어간 이름 대부분도 내겐 익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획의 방향에 대하여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들었다. <아이 메시지 I-Message>라는 전시 제목은 미술과 교육학을 전공한 기획자 이정란 선생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아닌 다른 누가 결코 뽑아낼 수 없는 타이틀이다. 또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적잖은 사람들은 제목에서 이를테면 상담자와 조언자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뤄지는 진솔한 대화전달법인 아이 메시지 개념보다 아이폰의 문자메시지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괜히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던 이야기다.

이 전시는 책을 주제로 한 전시다. 사실 나는 작품 소재와 주제가 겹치는 단체전을 그리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쟁쟁한 작가들의 출품작도 전형성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말이다. 또 전시에 곧잘 따라 붙는 아카이브 전시도 책에 대한 관객들의 피곤함이 더 쌓이게끔 한다. 그게 미술 글을 쓰고, 공부하는 사람이 할 말이나고? 부끄럽지만 그렇다. 읽을 수 없는 책들, 아크릴 박스 속에 질식된 아카이브, 봐도 별 도움이 안되는 증거물로서의 텍스트들. 아마도 그 전시를 준비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모아서 꽃아볼 일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카이브가 이쁘게 진열되는지에 관한 고려가 부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 <아이 메시지 I-Message>에는 그런 잉여 수단들이 빠져 있어서 좋다. 그리고 '아, 이 사람들 있어 보는 척 하려고 애쓰는구나.' 괜히 거창한 인문사회자 연과학을 전시 후광으로 삼는 무리수도 없어서 마음 편하다. 책이 완성되어 등장하기까지 필요한 구상, 디자인, 인쇄, 제본, 진열 등의 과정이 미술 작품이 보여주는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가정은 이번 전시의 핵심이다. 우리는 여기서 저자와 미술가, 또는 독자와 관객들 사이에 맺어지는 대화의 한 방식을 체험한다.

어울아트센터 야외와 실내 전시공간 입구에 자리 잡은 **김봉수**의 <피노키오> 조각 연작은 바로 책과 예술의 스노비즘을 꼬집고 있다. 책 더미 위에 걸터앉거나 버티고 선 피노키오는 길어진 코가 상징하듯이 거짓말쟁이의 아이콘이 아닌가. 많은 작가들과 수용자들이 자신에게 모자란 지적인 면을 난해한 이론과 활자로 감추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있다. 작가가 가진 이런 자기성찰적 태도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대중 편의주의로 비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 미술이 품어야 할 조건에 그만큼 접근한 태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조각가 **이기철**의 <팻 애니멀> 시리즈도 건물 계단 앞에 해치 상처럼 설치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조각은 사슴과 곰인데, 작가가 이 연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주인이 먹이를 많이 준 탓에 동보가 되어버린 애완동물의 묘사가 주된 작업이었다. 이제 야생동물의 범주로 확대된 이기철의 작업은 본인의 다른 시리즈 개념과 이어질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살집이 붙은 대상을 만드는 조각은 작가가 덩어리감을 표현하기도 좋고, 타일 형식으로 붙는 표면 처리에도 손쉬운 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반대로 앙상한 양감의 조소 작업이 드러내는 팽박받는 영혼성이나 고뇌를 드러내기엔 불리한 점이

있다. 짐승에게 고뇌 따위가 있냐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

이강훈의 환조 <목도리를 한 남자>는 높이가 5미터에 이르는, 이번 전시의 출품작들 가운데 가장 큰 작품이다. 그렇다. 이젠 누가 보더라도 섹스쥬페리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어린왕자다. 청동상처럼 원가를 기념하는 듯 우뚝 솟은 이 조각의 재료는 실은 브론즈가 아닌 합성수지다. 이 작품을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작가와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주제는 있다. 내 생각에 소설 <어린왕자>에 맞닿을 만큼 대중적인 인지도와 교양의 효용을 갖춘 작품이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나 영국 고딕호러스설들일 건데, 기껏해야 갈매기는 인격화가 어려운 조류일 뿐이고, 나머지들도 괴물이다. 여러모로 가장 무난하고 유명한 월드비트(world beat)로서의 아이코는 어린왕자 뿐이다. 작가가 다른 문화 콘텐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기교를 선보이는 건 환영받을 일이지만, 비슷한 소재를 파고들어 비교 관계에 놓이는 수많은 작가와의 경쟁까지 피할 순 없다.

미디어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 **서현규**는 이번에는 야외에 이채롭게 설치 조각을 선보였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름 붙은 스테인리스 금속 작품은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점에서 내게는 매우 반가운 메시지다. 본 전시장 입구 벽에 프로젝트로 투사되는 <디지털 문자>는 훈민정음의 글꼴 체계로 구성된 영상을 관객이 조작하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쌍방향 미디어아트다. 이 논리적인 체계에 비등하게 다가설 수 없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가 구현하는 영상은 훨씬 더 막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간신히 자제하고 있는 인상이다. 바로 그 점이 내가 이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다.

전시장 내부의 맨 오른 편에 있는 작품은 빨간 책들의 강박적인 배열이다. 내게 빨간 책이라 함은 고색창연한 추억 속의 빨간 기본영 어부터 떠오른다. 내용이나 삽입된 만화에서 보이는 파격적인(동시에 허술한) 디자인을 압도하는 빨간 겉표지는 책제목과 상관없이 그 교재의 대명사가 되었다. **임현우**의 빨간 책들은 아크릴 판으로 만든 형태에 글자를 입혀 완성되었다. 하지만 작품 제목 그대로, 이것은 책이 아니다. 딱 떨어지는 감각적인 면모에 더하여, 확정된 기표를 비껴나는 기의가 동동 떠다닌다. 이를테면 여기에는 텍스트가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맥락을 이해해야 더 흥미로울 텐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열기가 꽤나 식어버린 후기구조주의의 흔적이 중심에 있다. 20년 전이라면 뜨겁게 달아올랐을 빨간 책과 연필뭍치의 상품미학은 왜 이제야 등장한 걸까? 작가가 아직도 그 문화담론의 황금시대에 여전히 판을 펼치고자 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표상으로 기능하길 원하는 걸까?

반대쪽 벽면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박병철**이 실크스크린과 사진으로 뽑아놓은 <Departure> 연작이 있다. 그의 신작들은 예전대 그래픽티 아트나 모노크롬 회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퍼져있는 유치한 과잉 감성 이미지까지 연상시킨다. 작가는 작업을 완성해나가는 단계가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 끼워든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어떤 면에서 매우 낡고 고전적인 방식의 편집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는 실사와 디자인의 중첩을 통해 하나씩 완성되었다. 뭐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 작가는 하나의 공정으로서 도서 콘텐츠 제작의 질서를

해체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좋은 한데, 그 형식 파괴가 곧 현대 미술의 원리는 아니다. 여러 면에서 더 쫄쫄하고 경직된 미술의 규칙에 그의 작업이 공진화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흥미롭다.

나는 이런 말을 몇 번 들었다. '판화 하면 박철호고, 박철호 하면 판화다.' 이 말에 섭섭해 할 작가가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언술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서양화가 **박철호**는 지금까지 자신이 빛낸 경력의 상당 부분을 판화 작업으로 채워왔다. 그의 대표작인 작업 〈Circulation〉은 자연 속의 여러 요소가 가지는 성질을 미술의 형식으로 끌어와서 해석한 연작이다. 그가 공개한 작품 그 자체에 관해서 타트는 게 아니고, 이 공간과 기획 속에 엮인 작품에 한해서 볼 때 그것은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각각 보여준다. 이를테면 판화를 찍어내는 과정은 출판 과정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을 가진다. 그것이 장점이라면, 여기 펼쳐진 이미지를 구현하는 미술 같은 기법 이야기를 뺀다면, 일반 대중에게 다가서야 하는 그는 자연과 생명의 순환이라는 중범위 수준의 고상한 언어 대신 다른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그를 포함한 여러 추상화가들에게 늘 부과된 숙제다. 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 이야기는 추가해야 된다! 평면 작품을 책처럼 엮어서 세워 둔 작업은 평소 선생이 품은 인품과 유머를 그대로 드러낸 경쾌한 시도다.

김계희는 훌륭한 삽화가의 장점을 갖춘 예술가다. 작가가 선보인 수채화 〈집의 기억〉과 목탄화 〈만나지 않은 나〉 연작이 보여주듯 한 세계는 일종의 동화다. 이 동화는 지나간 시간을 재료 삼아 현재로 이어진다. 적어도 이런 경우엔 다른 누군가의 해석보다도 작가의 자기 기술을 직접 인용하는 게 더 낫다. 그 텍스트는 상징주의 시적 표현처럼 시각이 주를 이룬 공간감에 호소한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는 내 속의 아이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어 감사하다. 집의 기억, 모든 것이 그대로인 행복의 시절. 햇살이 반짝였고, 꿈속에는 소녀들이 춤을 추었다."

오정향의 작품 세 가지 〈서재의 발견〉, 〈기억의 발견〉, 〈일기의 발견〉으로 구성된 발견 연작은 우리가 기억 속 사건을 묘사할 때 표현되는 상태, 즉 흐릿한, 부정형, 비물질성 등의 성질을 작품으로 안착시킬 때 반대 특성으로 우리 앞에 등장시킨다. 말하자면 그것은 뚜렷함, 직선, 오브제의 물성 같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억의 심상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중간에 들어간 공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가끔 있다. 작가는 지금까지 개인의 기억과 한 공동체의 기억 사이의 같은 궤를 찾아내어 작품화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평범한 개인의 진술 혹은 사소한 사건의 기록을 예술 속으로 안착시키는 방법은 보다시피 다양하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뉴 미디어 기술의 구사는 그녀가 일찍이 이룬 발견이다. 책과 전기전자기술의 접점이 다른 아닌 전자책 형태로 드러난 것은 당연하다.

책을 소재로 삼은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이지현**이다. 난 그의 작품에 관하여 이미 몇 편의 글을 쓴 바가 있다. 거기엔 평범한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바꾸는 미술 사조 이야기도 있었고, 해체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다. 이번에는 뭔가 또 좀 다른 말을 쓰고 싶는데, 이런 말을 작가나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 이지현이 꿈꾸는 책의 이미지를 바라보다가 그 책의 변형이 마치

말라비틀어진 미이라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시간을 가로질러 쌓인 경이롭고도 기괴한 그 면모는 이번 신작을 통하여 공자왈 맹자왈을 읊는 유유자적의 태도를 갖춘다 오래된 책을 짜 맞춰 완성한 두 점의 작품 제목을 볼 것. 하나는 〈dreaming book-孔子曰 공자왈〉이고, 또 하나는 〈dreaming book-孟子曰 맹자왈〉이다.

화가 또는 시인 **백미혜**, 뭐라고 불리어도 상관없을 거다. 하지만 전시되고 있는 작품 〈grid poetic 새〉에 준거해서 서양화가 백미혜는 자신의 시를 미술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왔다. 예컨대 울격에 맞춘 시를 음악으로 바꾸면 노래 가사가 되고, 서사시를 희곡의 뼈대로 삼는 것도 초기 연극의 원리였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를 담은 시집을 문장 단위로 오려서 캔버스에 붙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백번 양보에서 종이책의 글자나 그림을 오려서 미술로 탈바꿈하는 건 어릴 때부터 누구나 해본 일이지만, 자기가 써서 출간한 글을 재료로 삼는 일은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없다. 물론 이 작품이 그녀만이 독점하는 최신 기법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놀랍게도 시트지로 크게 돋운 문장은 예컨대 '악트'나 "릿터"같은 매체를 통해 젊은 문학가들이 대중과 공유하려는 감성에 닿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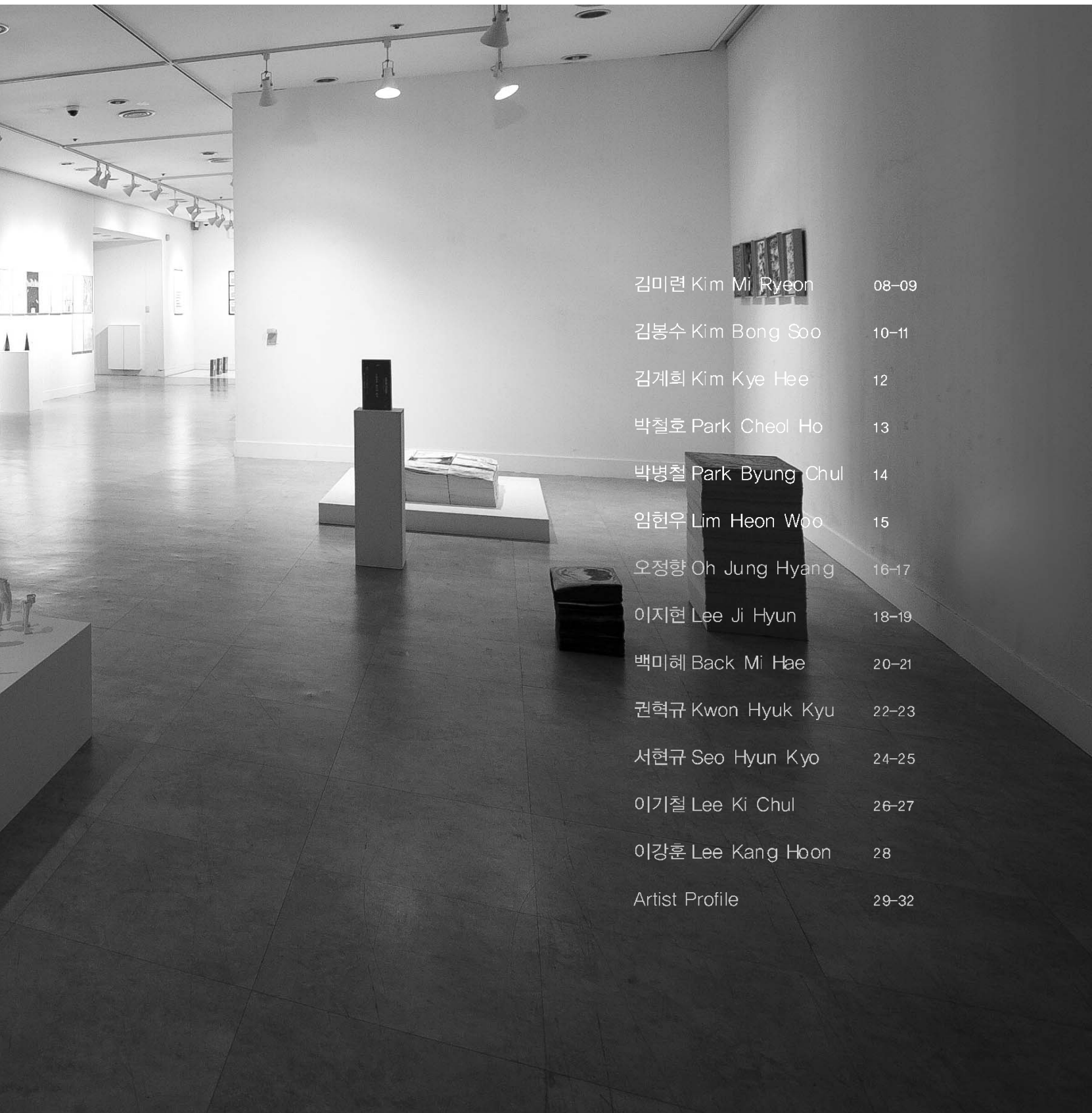
창작집단 로컬포스트의 이름으로 두 명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했다. 권혁규와 김미련이다. 하나의 간판이긴 한데, 두 작가의 작품이 여기서 개념 연계성까지 가지는 건지 내겐 사전정보가 없다. **권혁규**의 〈model-M〉시리즈를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언뜻 받은 내 인상은 조지 시걸의 조각을 줄여놓은 디오라마였다. 저마다의 갈 곳을 향해 길을 걷는 현대인의 모습은 여기서도 재현된다. 다만 3차원 프린팅기를 이용한 조각이 권혁규의 작업이다.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말이 정확하다. 구체적인 대상을 스캔하여 수치 입력한 값을 환조로 출력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책이나 전시장에 두고 그 어떤 개념을 덧붙여 미술작품이라고 하자. 거기에는 종이에 활자를 찍어 복사하는 인쇄기가 있다. 전시를 공개하는데 굳이 인쇄하는 기계까지 가져다 놓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각이 출력되는 과정은 지금도 많은 이에겐 생소하다.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산출물이 특별하지만 동시에 책 인쇄와 같은 과정으로 탄생하는 것이란 점을 암시할 정도의 친절함은 필요하다.

끝으로, 작가 **김미련**의 〈시간의 두께〉 연작, 입체 지도처럼 높낮이가 있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침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사면도 있다. 지질학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땅의 변화에 비하면 예술 지형의 변천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더구나 한 예술가의 생애 과정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어디까지나 스케일의 주관적인 인식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고, 그 예술보다 물리계의 시간은 훨씬 길다. 그렇지만 한 작가가 작업 활동을 해오면서 디터온 토대로 시간의 흔적이 만만찮게 남아있다. 전시 경력에 비례하여 쌓여가는 도록의 무게를 이처럼 자조적이면서 동시에 유려하게 펼쳐내는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설령 그 외형의 상동성은 있을지언정 그 속에 파묻힌 탓에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없는 개인의 예술사는 온전한 작가만의 몫이다.

윤규홍 (갤러리 분도 아트디렉터/예술사회학)

아티스트 북
I-Message

Exhibition View



김미련 Kim Mi Ryeon 08-09

김봉수 Kim Bong Soo 10-11

김계희 Kim Kye Hee 12

박철호 Park Cheol Ho 13

박병철 Park Byung Chul 14

임헌우 Lim Heon Woo 15

오정향 Oh Jung Hyang 16-17

이지현 Lee Ji Hyun 18-19

백미혜 Back Mi Hae 20-21

권혁규 Kwon Hyuk Kyu 22-23

서현규 Seo Hyun Kyo 24-25

이기철 Lee Ki Chul 26-27

이강훈 Lee Kang Hoon 28

Artist Profile 29-32

Kim Mi Ryeon

김미련



시간의 두께 연작,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8 / 레이어드 피부조각 시리즈, sanography_피그먼트 인화, 21×297cm(5매), 2018

수 십 년의 작업을 통해 축적된 것은 전시된 작품을 기록한 도록과 설치 후
분해되고 창고에 두텁게 쌓여있는 잔여물이다
전시경력만큼이나 남겨진 도록들을 조각좌대의 높이만큼 쌓아 올린다.
그라인드로 표면을 갈아서 켜켜히 쌓아 올린 지층처럼 드러난 작가의 시간을 층층이 포갠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온전한 고독과 열광의 시간을 증명하는 존재의 레이어를
'미필적 고의'의 증거물로 제출한다.



Kim Bong Soo

김봉수



좌) I am Pinocchio 16-7, Stainless steel, 50×60×50cm, 2016
우) I am Pinocchio 16-2, Bronze, 60×60×220cm, 2016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 욕정 때문에 달콤한 거짓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고 있는 듯하다.
욕망을 위하여 순수함을 숨기는 모습을 보면 마치 꼭두각시 피노키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실을 숨긴 채 거짓말을 내뱉고 자기만의 순수함을 지운 존재감이 상실된 꼭두각시 피노키오처럼
이리저리 이끌리며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우리의 모습....



피노키오의 욕망
 화강석, 브론즈
 220×160×320cm, 2018



피노키오의 생각
 화강석, 브론즈
 160×90×120cm, 2018

Kim Kye Hee

김계희



집의 기억, watercolor on paper, 34×54cm(10ea), 2015
만나지 않은 나, charcoal on paper, 76×56cm(2ea), 2018

아직도 눈 감으면 대추나무 잎사귀에 반짝이던 총만의 햇살을 볼 수 있다.
맨드라미 꽃씨들이 손안에서 출렁이고, 모든 것들이 서로를 사랑하여 몸을 기울이는 느낌.
오늘처럼 햇살이 반짝였고, 마당은 고요하고 그윽하였다.
영원 속에 정착된 우리 귀중한 행복의 기억은
언젠가 자신을 처음의 그 자리에 다시 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는 내 속의 아이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어 감사하다.
집의 기억, 모든 것이 그대로인 행복의 시절.
햇살이 반짝였고, 꿈속에는 소녀들이 춤을 추었다.

Park Cheol Ho

박철호



Circulation-1, Mixed media, 65×65cm, 2018 / Circulation-2, Mixed media, 130×180cm, 2018 / Circulation-3, Mixed media, 100×150cm, 2018

순환 (Circulation) – 자연의 흐름, 공간, 빛, 바람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순간과 영원, 절망과 희망의 순환 과정들이 자연의 결과 파장을 만들고

나의 화면에서 선(Line)이 된다. 또한 빛의 흐름 속에는 순수성과 불변성, 알 수 없는 추상적 기호들이 존재하며 유기적으로 소통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조형언어를 탐구한다.

Park Byung Chul

박병철

시간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고 축적되는 자연적 이미지에 항상 민감하다.
자연은 무한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나의 상상력에 의해 확장되고, 투영되고, 표현되고,
그리고 디지털에 의해 복제되어 대중매체로 이어진다
모든 표현은 자연의 파편이며 디지털도 자연의 일부다 디지털의 출발(departure)이다.



Departure, 실크스크린, 60×90cm, 2018
Departure, 제도판+실크스크린, 60×90cm, 2018
Departure, 포토그라피+출력, 21×29.7cm(12ea), 2018

Lim Heon Woo

임헌우



책을 읽는다 - 소유한다 - 좋아한다 - 가진다 - 본다는 것은
 세상에 도전한다 - 불가능을 시도하다 - 내일을 묻는다 - 미래를 꿈꾼다 - 누군가를 움직인다는 것이다.
 빨간색 아크릴로 제작된 여러 개의 책표지는 책의 은유이자 상징이며 흰색의 문자는
 책을 읽는 행위와 책을 꿈꾸는 텍스트다 언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희망하는 지점인 셈이다.
 언어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 언어가 책이 되는 메시지

Oh Jung Hyang

오정향



서재의 발견, 315x215cm, 모니터, 디지털프린트 설치, 1분 33초, 2018

장소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담은 '기억의 발견과 성이성의 일기를 새롭게 구성한 '일기의 발견'은 보통사람의 일상, 개인이 가진 소소한 사연들도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책의 주인공처럼 특별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의 삶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힘으로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각각의 삶이 가진 고유함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삶(책)에 어떤 이야기를 채워갈지 함께 고민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기억의 발견, Mixed Media, 2분 19초, 2018



일기의 발견, Mixed Media, 2분 59초, 2018

Lee Ji Hyun

이지현



Dreaming book-孔子曰 공자왈, book 공자책, 50×53×18cm, 2018

표면의 질감을 바꾸면 새로운 이미지를 품고 있는 오브제가 된다.

한 올 한 올 뜯어 보풀을 만들면 책의 외형은 그대로인 채 두드리고 찢는 과정이 더해지면서 글자는 해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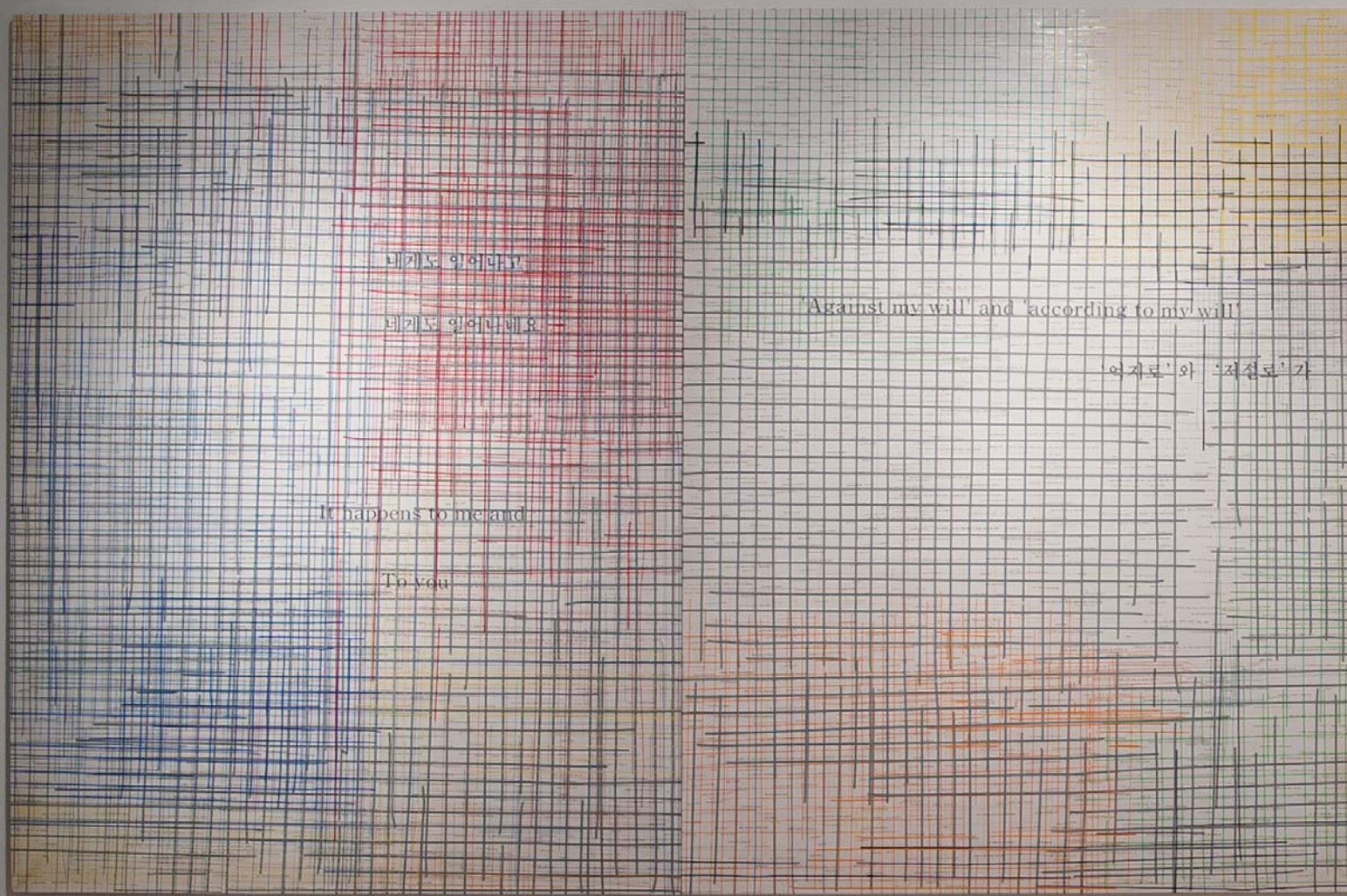
해체 과정을 통해 지워내지만 한편으로 새롭게 재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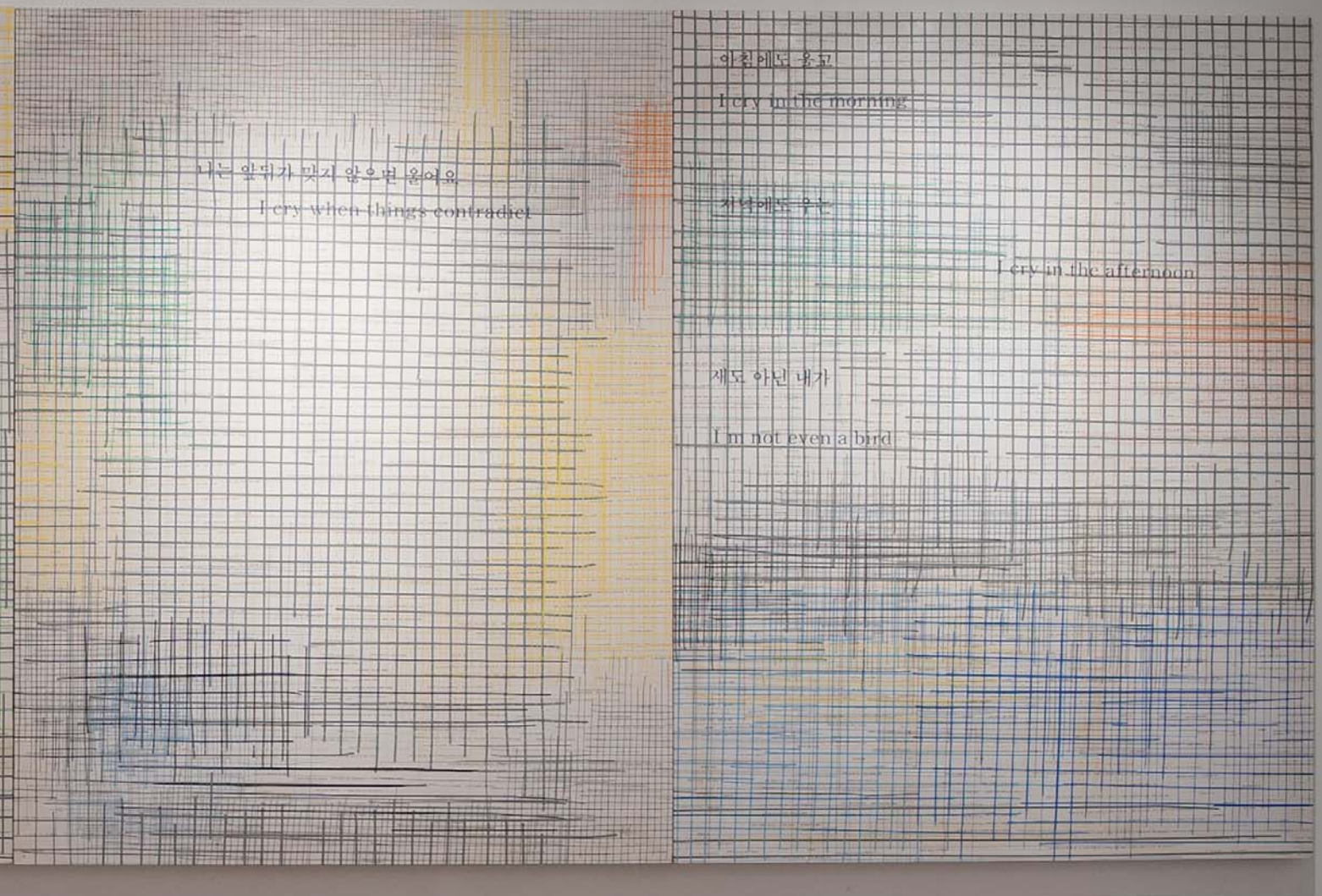
Dreaming book-孟子曰 맹자왈, book 맹자책, 80×30×14cm, 2018

Back Mi Hae

백미혜



- 침묵 속의 언어 건지기
- 탈의미의 미니멀한 선과 색의 겹침, 그리고 테이핑
- 층위를 이룬 화면의 심층 구조를 통한 이미지 함축과 메타포 발생



Grid poetic 새 1-4, taping on canvas, 120x150cm(4ea), 2016

Kwon Hyuk Kyu

권혁규



Model- M, pla(플라스틱), 가변크기, 2018

데이터가 변환되면서 파생되는 일련의 미시적 왜곡 · 변형 과정을 가시화하고자한다.
스캐닝한 모델들을 복제하여 일종의 데이터로 전환시키고, 3차원 프린팅을 거쳐 재건된 모델들은
물리적인 사물로 변해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환된 모델들을 가시화하기 위해
최근 비약적 발전을 이룬 역설계 3차원 스캐닝과 3차원 프린팅으로 표현의 확장을 시도한다



Seo Hyun Kyo

서현규

평면 속에 있을 공간조형에 대한 확장성을 표현한다.
텍스트가 있는 3차원적 조형을 탐구한다.



새로운 시작,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 도색, 150×40×210cm, 2018



디지털 문자, Movie2 min & Interaction movie, 영상 가변설치, 2018



Lee Ki Chul

이기철



Fat bear, 210×130×130cm, 혼합재료, 2017

똥똥한 동물들.

주인의 그릇된 사랑으로 인해 자연적인 체형에서 벗어나 버린 똥똥한 애완동물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해지는 타인에 대한 유·무형의 폭력의 결과물들이다

자연 그대로의 체형을 벗어난 그들의 그 '인위적인' 외형은 따뜻한 겉모습 속의 또다른 냉소이다.



Fat deer, 180×140×120cm, 혼합재료, 2017

Lee Kang Hoon

이강훈

목도리를 한 남자

30여년전 누나로부터 소설 '어린왕자를 선물 받았다.
동화같은 이야기인데 동화같지 않은 어른들 동화
목도리를 한 아이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의미를 부여하다
때로는 잊기도 잃어버리기도 하며 남자가 되었다
쌓아둔 시간들이 어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러면 편하련만.
키다리 아저씨처럼 표현된
어린왕자의 이미지는 나에게 있어 욕구이자 욕망이다



목도리를 한 남자
강화플라스틱
150×170×500cm

아티스트 북
I-Message

Artist Profile

권혁규 Kwon Hyuk Kyu

경북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7 올해의 청년작가展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6 The Data escape project part1-DATA sheet展
(중앙갤러리202, 대구)
2016 Mdon:Sound Room展 (대안공간 싹, 대구)
2015 Virtual sound project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savatage—@hanmail.net

김계희 Kim Kye Hee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단체전

2015 공간-세가지 방법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현대미술초대전 (문화예술회관, 울산)
Daegu-LA전 (Gaia gallery, LA)
아트&북 페스티벌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2014 마음의 연금술전 (에다소소, 청도)
2013 아시아현대판화교류전 (시립미술관, 광주)
Matrix Tool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2 Beyond multiple (봉산문화회관, 대구)

출판

〈페인팅레이디 동화달력〉 19회
페인팅레이디 그림동화집 〈연애하는 남자〉외 다수

paintlady@hanmail.net

김미련 Kim Mi Ryeon

경북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수료
독일 뒤셀도르프크립미대 학사, 석사(A.R.Penck 마이스터슐러(수제자) 수여)

개인전

2016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2012 빛 2012-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1 The spatial Plants, 주)독일한국문화원 코리아갤러리-기획공모전
(베를린, 독일)
외 다수

레지던시

2012-2013 대구예술발전소 텐토픽프로젝트1기
2008-2009 가창창작스튜디오 4기

수상

2003 독일 리벌즈 변호사협회 작가후원상 1등상

edukimi@daum.net

김봉수 Kim Bong Soo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7 피노키오의 생각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3 I am Pirocchio展 (JONE 갤러리 초대전, 대구)
2012 욕망을 위한 지적존재의 이중성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외 다수

레지던시

2013 하슬라 아트월드 국제레지던시

thoma77@naver.com

박병철 Park Byung Chul

일본 츠구바예술대학원 졸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8 빅토마토갤러리 초대전 (제주)
2017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초대전 (대구)
2015 김영숙갤러리 초대전 (대구)
2013 코코라보라토리갤러리 (일본)

수상

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대구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상 수상

soyuree@hanmail.net

박철호 Park Cheol Ho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후기대학원 수료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2016 기억공작소 (봉산문화회관, 대구)
동원화랑 (대구)
2015 갤러리 DA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갤러리 (구미)
2014 갤러리 전 (대구)
2013 스페이스 빈 (서울)
외 다수

cchedho@hanmail.net

백미혜 Back Mi Hae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미술학교 마이스트 과정 수료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7 백미혜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5 grid poetic (갤러리 희, 대구)
2014 grid poetic-기억공간 (DCU갤러리, 대구)
외 다수

출판

큐레이터 프로젝트 (도서출판 이산 2012)
별의집 (민음사 2002)
에로스의 반지 (민음사 1995)
토마토씨앗을 심은 후부터 (민음사 1986)

tira53@cu.ac.k

서현규 Seo Hyun Kyo

경북대학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박사수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6 올해의 청년작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서현규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0 서현규 개인전 (에덴벨리갤러리, 양산)
외 다수

damin918@hanmail.net

오정향 Oh Jung Hyang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7 기억과 환영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가창의 기억 (스페이스 가창, 대구)
2013 門續訖聞, 커브2410 (범어아트스트리트 스페이스5, 대구)
2011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레지던시

2009-2010 가창 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출판

가창의 기억 (2015)

grasia1001@naver.com

이강훈 Lee Kang Hoon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1 Missing Myth (갤러리 위, 대구)
2010 Play Pray, CON-SUM (뒤셀도르프, 독일)
외 다수

레지던시

2009-2010 가창창작스튜디오

dobrosa78@hanmail.net

이기철 Lee Ki Chul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7 GLASS BOX ARTSTAR Ver.5 이기철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FAT PET series (전 갤러리, 대구)
2015 개인사 박물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FAT PET series (문화공간 청춘, 대구)

수상

2007 삼성현미술대전 최우수
2006 정수미술대전 특선

레지던시

2013 하슬라호텔 뮤지엄
2010 가창창작스튜디오

lkkc21@naver.com

이지현 Lee Ji Hyun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8 同床異夢 동상이몽 (분도갤러리, 대구)
2017 기록하다. 나를 이지현전 (아트센터 쿨, 대전)
2016 유리상자-아트스타 Ver.1 유리상자 10년 특별기획전 이지현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아트큐브-이지현 '꿈꾸는 옷들', 'Dreaming book'
(서귀포 치유예술, 서귀포)
2015 Dreaming Jeju (아중섬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
외 다수

수상

2007 제1회 인사미술제 인사미술대상 (인사미술제운영위원회, 서울)
2001 박영덕화랑 신인작가공모 대상 (박영덕화랑, 서울)
1998 제1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서양화부문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등

corea-art@hanmail.net

임헌우 Lim Heon Wbo

중앙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디자인학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미술학 석사)

개인전

2018 Imaginary Garden 2018 (상상의 정원 2018)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Imaginary Forest II - 임헌우 그래픽 디자인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
2017 Imaginary Garden 2017 (상상의 정원 2017)
(시오갤러리, 대구)
2016 임헌우 그래픽포스터전 2016 (극재미술관, 대구)
외 다수

수상

2013 IF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본상 수상 (독일)
2012 레드닷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본상 수상 (독일)
2011 그래픽디자인 USA 본상 수상 (미국)

dreamon4u@hanmail.net